

총선 입지자들 “어찌 하오리까”

예비후보 등록 보름 앞인데... 통합 혼선에 경선 룰 안갯속

정치 지형 예측불허... 얼굴 알리기에만 주력

내년 4·11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12월13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입지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야권통합이 혼선을 겪으면서 정치 지형을 예측할 수 없는 데다 경선 룰도 확정되지 않아 경선준비에 나서지 못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27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통합이 지체되면서 경선 구도와 경선룰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총선 예비주자들은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면서 중앙정치권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예측불허 정치지형 변화=우선 민주당 내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향후 정치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 잔류파와 야권

통합파로 나뉘질 경우 예비주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야권통합이 명분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민주당’이란 상징성 때문에 통합정당행이나, 잔류파를 놓고 주판알을 튕겨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야권통합이 이뤄질 경우에도 통합과 혁신, 시민사회, 한국노총 등이 당에 참여하면서 정치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선만 해도 만만치 않은 일로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통합에 참여하는 세력과 추가 경쟁까지 벌여야 하기 때문에 걱정은 더 크다. 나아가 내년 민주당 내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향후 정치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 잔류파와 야권

받는 일 자체가 접합산중이다. 일부 지역구에서는 현역 지역위원장의 반발로 민주당에 입당 또는 복당을 못했던 인사들이 통합과 혁신 회원이 된 뒤 통합과 함께 자연스럽게 입당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총선 공천 경쟁은 어느 해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신생 정당이 인제 영입을 위해 전략공천을 이용할 경우 예비주자들이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는 더욱 많아진다.

◇경선룰도 오리무중=예비주자들의 또 다른 고민은 경선룰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현재까지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의 경선이 도입될 것인 전망이 무세하지만 그 구체적 방법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당원과 시민의 비율은 어떻게

될지, 여론조사는 도입되는지, 모바일투표는 이용하는지, 현장투표의 경선 비율은 어떻게 될지 등 어느 것 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것이다.

때문에 지역구 행사에 참여하거나 인지도 조사를 하는 정도 이상의 활동을 못하는 등 입지자들이 효율적인 경선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처음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인사들은 경선 준비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공천 경쟁 구도가 야권통합 후 어떻게 변할지와 경선 규정이 어떻게 결정될지 등을 묻는 입지자들이 늘고 있다”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이 같은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야권통합의 로드맵과 경선룰 등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국고예산 ‘FTA 불똥’

與 4년연속 단독처리 가능성... 현안사업 줄줄이 누락 우려

한나라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강행 처리로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예산 확보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지난 3년 연속 국회 예산안 심의 때마다 터져 나온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지역 예산 확보에 큰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27일 광주·전남도와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함에 따라 민주당 야당이 증원을 거부하는 등 정국이 급랭하면서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와 지역예산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한나라당이 단독 심의를 하면 F1대회 예산(300억원)과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100억원) 등 민감한 성격의

이 지역 예산이 줄줄이 누락될 우려가 크다.

실제로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던 지난해는 광주·전남지역 현안 예산들이 국고 지원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광주시의 경우 문화콘텐츠기술(CT)연구원 설립 10억원,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 100억원, 경전선(광주~순천) 복선 전철화 사업 50억 원 등이 예결위에서 삭감됐다. 전남의 경우 전주~광양, 목포~광양 고속도로 사업비 1200여억원이 예결위에서 삭감되고, 여수산단 진입도로도 예초 요구액의 절반인 500억 원만 반영됐다.

F1 경주장 추가 공사비도 전액 누락된데다 대회 운영비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은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2008년 이후 계속 이

어지고 있다.

올해도 국회에는 ▲내년 F1대회 운영비(144억원) ▲광주 어반폴리 사업(50억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사업비(98억원) ▲영암호 통신문 설치비(70억원) 등을 비롯한 광주 유니버시티드대회 지원 예산도 234억원에서 433억원으로 증액되는 등 굵직한 주요 사업들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에 올라 있다.

이들 예산은 수년째 전액 삭감됐거나 쥐꼬리만큼만 반영돼 국회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에 따라 한나라당의 단독 예산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내년 예산안 처리를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준영 전남지사와 전남지역 22개 시·군 단체장들이 지난 25일 여수시 덕충동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을 예매한 뒤 약정서를 들어보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내년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여수 신항 일대에서 열린다. <전남도 제공>

여수박람회 해외 관광객 유치 총력

전남 시장·군수 지원 다짐 자매도시 단체 관람 유도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25일 박준영 전남지사 주재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전남지역 시장·군수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개최를 위한 국내외 홍보 협력방안

▲테마 관광상품 개발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 방문 공동 대응 ▲관광객 맞이를 위한 수용 태세 마련 등 성공 개최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성공 개최 및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친절·질서·청결 등 범도민 운동을 펼치는 한편, 시·

군별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의 박람회 관람을 적극 유도하고 2만~5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중국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음식점 등 편의 시설 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또 박람회 기간 중 ‘국가’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86개국과 4개 국제기구와 결연을 맺고 문화공

연 등을 공동 개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내 박람회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전략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조직위원회도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을 목표로 외국 관광객 유치 여행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 국회 등원론 술술

장외투쟁 강경론속 예산안 처리 ‘고민’

민주당 내에서 국회 등원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한 이후 비준안 처리 원천봉쇄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또 국회 일정보다 불참을 선언해 정기국회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국회일정 보이콧이라는 강경론을 유지하고 있다.

이용섭 대변인은 27일 “한나라당이 의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국회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느냐”며 “우리가 등원한다면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해도 관용해’하는 부정적 학습효과만 더해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일정에 복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방치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결코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18대 국회 들어 예산안이 합의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현실론도 무시할 수 없다. 당내에서는 예산안

합의처리라는 조건을 전제로 예산안 심사만큼은 응하는 ‘부분 등원’의 견도 나온다.

정장선 사무총장은 “이 정부 들어 매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바람

에 예산을 멋대로 편성하는 일이 상습적으로 벌어졌다”며 “FTA 문제와 예산은 별개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www.금세기.com

전통적인 먹거리를 현대화, 시스템화 하는 기업- 생산에서 제조까지 일원화를 제안하는 식품기업- 쌀, 막걸리, 떡 등 우리쌀 소비촉진 선도하는 기업-

막걸리 친환경 쌀과 우리쌀에 전통누룩을 배양하여 만든 술로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전통 막걸리를 만듭니다. 최신 시설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막걸리를 생산합니다.

떡국, 떡볶이 친환경 쌀과 우리쌀을 원료로 사용하여 떡국과 떡볶이를 만듭니다. 최신설비를 도입하여 HACCP인증에 맞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통식품을 복원하는데 연구개발하여 현대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축임F&C의 연구소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식품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식품을 복원하는데 연구 개발하여 현대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을이 되면 따가운 햇살이 곱스런 고객수인 황금녘” 농부의 아무런 손길과 우렁이가 함께 일구낸 이삭의 희망이다. 하지만 쌀 소비가 급증하는 요즘 이제 단순한 밥이 아닌 소비자의 식상을 고려한 다양한 음식 개발이 우리 농촌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데,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우리쌀의 오랜 노후가 결집된 다채로운 쌀 가공식품! 우리쌀의 맛있는 변신이 시작된다. <방송내용 발취>

생방송 MBC 전국시대 2011년 9월 7일 방영

축임 F&C 전남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1123-2 TEL. 061-835-8700, 8703 FAX. 061-835-8705

좋은 원료에서 좋은식품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만들어갑니다

전통적인 먹거리를 현대화, 시스템화 하는 기업- 생산에서 제조까지 일원화를 제안하는 식품기업- 쌀, 막걸리, 떡 등 우리쌀 소비촉진 선도하는 기업-

막걸리 친환경 쌀과 우리쌀에 전통누룩을 배양하여 만든 술로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전통 막걸리를 만듭니다. 최신 시설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막걸리를 생산합니다.

떡국, 떡볶이 친환경 쌀과 우리쌀을 원료로 사용하여 떡국과 떡볶이를 만듭니다. 최신설비를 도입하여 HACCP인증에 맞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통식품을 복원하는데 연구개발하여 현대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축임F&C의 연구소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식품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식품을 복원하는데 연구 개발하여 현대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을이 되면 따가운 햇살이 곱스런 고객수인 황금녘” 농부의 아무런 손길과 우렁이가 함께 일구낸 이삭의 희망이다. 하지만 쌀 소비가 급증하는 요즘 이제 단순한 밥이 아닌 소비자의 식상을 고려한 다양한 음식 개발이 우리 농촌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데,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우리쌀의 오랜 노후가 결집된 다채로운 쌀 가공식품! 우리쌀의 맛있는 변신이 시작된다. <방송내용 발취>

생방송 MBC 전국시대 2011년 9월 7일 방영

축임 F&C 전남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1123-2 TEL. 061-835-8700, 8703 FAX. 061-835-8705